

국제협력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28일 용산 그 레이스 호텔에서 국제협력위원 회를 개최했다.

유완영 KTA개방대책반장, 과 치영 한국데이터통신 상무, 장주 일 삼성전자 전무, 김진찬 대우통 신 전무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한 미업계간 협의회 개최결과 평가 및 통신시장 개방대책에 따른 제 반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 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 신시장 개방대책에 따른 제반사 항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불이익 최소화 모색 ▲관 계기관의 정책적 지원필요 ▲국 내업체들의 협력과 지나친 시장 경쟁 지양 ▲협회를 중심으로한 업계의 주체적 대응을 위한 구심 점 마련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 다.

두산그룹 EDI순회교육

협회는 지난 11월 6일 두산연수 원에서 EDI(전자정보교환)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 산업체들의 EDI도입 및 보급을 촉진키 위해 실시된 이날 순회교육은 두산그룹 임원진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협회 EDI 순회교육은 한국데이터통신 김 대규 상무를 강사로 하여 EDI의 개요, 국내외 동향, 도입방안 등을 폭넓게 소개한다.

한편 협회의 이같은 순회교육 실시는 EDI도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美 IIA와 국제협력 강화

협회는 미국의 정보통신 유관 기관인 IIA(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PTC(Pacific Telecommunication Council)와 상호 교류키로 했다.

지난달 초 미국에서 열린 한·

미 정보통신업계 협의회에 참석 했던 최성규 협회 사업부장과 송 형석 협회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가 이들 단체를 방문함으로써 이 루어진 이번 교류협정 추진은 양 국간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상호 교환과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추계특강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매 주 수요일마다 1회씩 정보통신에 관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이번 추계특강은 회원사 임직원은 물론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달 6일 EDI특강을 마지막 강

좌로 남겨놓고 있는 이번 정보통신 추계특강에는 ▲ISDN발전 기본계획 ▲DB구축 및 이용기술 ▲쌍방향 통신미디어 등에 관한 내용들이 심도깊게 다뤄졌다.

한편 협회는 내년에도 이같은 강좌를 수시로 개최,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대한 첨단기술 및 동향 조기습득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기술의 조기습득과 활용을 가능케 할려는 협회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들 자료집은 회원사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집중「전산망 표준화와 OSI 적용」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OSI에 관한 최신동향과 기술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 안전체제 연구」는 정보통신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정보의 안전성 메카니즘에 대한 국내의 동향분석 및 관련 보안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ISDN발전 기본계획」, 「DB구축 및 이용기술」, 「쌍방향 통신미디어」는 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 추계특강 강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업계 및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 5종 발간

협회는 최근「전산망 표준화와 OSI적용」, 「정보통신 안전체제

연구」 「DB구축 및 이용기술」, 「ISDN발전 기본전략」, 「쌍방향 통신미디어」등 5종의 자료집<사진>을 발간했다.

정보통신 관련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급함으로써 첨단

법제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23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법제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STM 김광호부장 등 9명의 법제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제진과 함께 이들 개정안이 위임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작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한편 법제위원회는 이달중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